

2021 아시아 주일 예배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and
Restores Your Health.”

일시: 2021년 5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신교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706호

“고난 속에 있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증언의 시간

(3:30-3:55)

인도: 신승민 목사 (교회협 국장)

■ 증언 I

탕 시안 킵 목사 (미얀마 침례교회)

통역: 김민지 목사 (NCCK 인권센터 사무국장)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호소”

■ 증언 II

메리 정 선생 (Peace and Unity 총무)

“필리핀의 인권상황”

■ 평화의 인사

이흥정 목사 (교회협 총무)

2021 아시아주일 예배

인도: 한주희 사제 (교회협 국제위원회 서기)

반주: 한신교회

*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귀로 들으며, 위대한 의사이신 당신께 마음이 향할 것을 원하십니다.

회 중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인도자 당신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무겁게 하는 육체의 상처와 땅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나의 은혜는 충분하다. 나의 힘은 너희의 약함과 질병, 그리고 너희의 고난과 상실, 고통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회 중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인도자 우리의 치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옴이 당신의 이름과 힘,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큰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회 중 전염병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인도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 온갖 착취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아픔과 탄식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잊혀졌고, 내쳐졌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빼앗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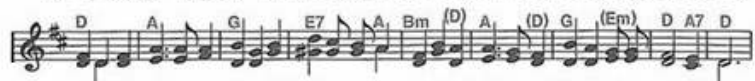
회 중 하나님, 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행자이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다함께 오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소서.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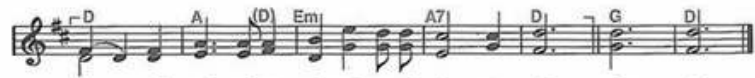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헤가 풍성한 구원의 - 하나님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희망이 솟는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생명



우 리 예 배 를 받 아 주 시 으 소 서 아 멘

*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배현주 목사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인도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목소리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시다.

회 중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과 불안의 이 시기에 우리가 당신
 께 나아옵니다.

인도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감염자
 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소서.
 병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소서.

회 중 전능하신 하나님, 감염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과 가족, 이웃들을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또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인도자 큰 위로자 되시며 이 세계를 지속케 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허락하소서. 이들이 사별과 공포의 시간을 넘어서고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온전하고 건강하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회 중 국가와 이웃이 서로 돕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질병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셔서 당신의 평화를 깨닫게 하소서.

인도자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군사정권 아래 민주주의와 존엄을 되찾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 홍콩, 스리랑카, 태국 등의 모든 아시아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다함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기도: 코로나로 희생되신 분들, 민주주의를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출애굽기 15장 21-26절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야호와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경호 주교 (교회협 회장)

유홍근 목사 (국제위원)

미얀마를 위하여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와 자유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자매와 형제들을 위하여, 미얀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다시 미얀마의 사람들이 악한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이들은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죽임당한 이들,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이들, 부상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수많은 미얀마의 민주시민들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1980년 5월의 광주, 그리고 2017년 촛불 항쟁을 기억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국경을 넘은 연대와 우정으로 함께 걸었던 한국 민주화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폭압적 권력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하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정부와 기업가들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보다 스러져가는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새 길을 내게 하옵소서. 아시아 공동체의 상생과 평화실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 3월 25일 목요기도회 기도문)

주여 비오니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주 여 비 오 니 들 어 주 소 서 우 리 의

an - swer me. O Come and lis - ten to me. O
 기 도 를 주 응 답 해 주 소 서 주

임종훈 사제 (국제위원)

아시아를 위한 기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모아 아시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시아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서구열강의 식민지배로 고통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군인들의 폭정으로 인권과 정의가 실종된 참담한 세상에서 살아 왔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폭정에 시달리는 우리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 특별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들 나라에 조속히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
 화가 이루어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 중
 10억 이상이 하루하루 끼니를 염려하며 곤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
 리가 가진 것을 곤궁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의 길이고
 평화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항상 나눔의 은총으로 우리 아시아 백성들을 축복하
 옹소서.

아시아에서의 핵무장은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심각합니다. 또한 아시
 아 백성들은 핵에너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
 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에너지, 평화와 번영의 길이 아
 니라 죽음과 공멸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시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송

주여 비오니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주 여 비 오 니 들 어 주 소 서 우 리 의
 an - swer me. O Come and lis - ten to me. O
 기 도 를 주 응 답 해 주 소 서 주

봉헌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보통으로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 인자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화시키며
 3. 구주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여 내게 힘주시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갈길을 인도하시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곤고와 함께 살면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

인도자

평화의 인사

다같이

*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규 목사 (국제위원회 위원장)

말은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력함 속에서 빛과 희망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강용규 목사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은총의 옥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16)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호흡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권능, 치유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빛나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가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새길을 열기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육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는
1974년부터 매해 성령강림절 직전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제정하여 아시아의 선교과제를 위해
각국의 회원교회와 교회협의회,
세계교회에 공동예배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입니다.

2021년 아시아 주일 예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교를 맡아주신 이경호 주교님, 특송을 해주신
한신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 계좌안내 : 신한은행 140-008-524171,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